

수신 : 원장

참조 : 경영본부장, 센터소장, 동북아팀장

<중국경제동향보고 2002-4>

2002. 1. 18

KIEP 북경사무소

중국, 總外債 규모 1,700억 달러

□ 최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국제관행에 부합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외채 통계를 발표하였음.

- 이에 따르면 2001년 6월말 현재 중국의 총외채 잔액은 1,704.1억 달러, 그 중 중장기 외채는 1,128.8억 달러, 단기 외채는 575.3억 달러로 각각 66.2%와 33.8%를 차지함.

- 외채의 도입주체별 구성을 보면, 중국정부 차관 496.9억 달러(29.2%), 국내금융기관 채무 337.6억 달러(19.8%), 외상투자기업 채무 340.7억 달러(20.0%), 국내기업 채무 116.0억 달러(6.8%), 리스회사 및 기타 단위 채무 7.6억 달러(0.4%), 중국내 외자 금융기관 채무 161.2억 달러(9.5%), 국내은행이 유치한 비거주자 예금잔액 5.1억 달러(0.3%), 무역신용대출 잔액 239억 달러(14.0%)임.

□ 이번에 발표된 외채 통계는 통계 범위와 분류방식 등의 측면에서 종전과는 산출기준이 상이함.

- 종전에 비거주자로 간주하여 통계에서 제외시켰던 중국내 외자금융기관의 대외채무를 외채 통계에 포함시킴.

- 또한 3개월 이내 기한의 무역신용대출과 국내은행이 유치한 비거주자 예금을 외채에 포함시킴.

- 종전에는 차용계약기간에 따라 단기외채와 중장기외채로 구분했으나, 새로운 통계에서는 채무상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통계산출 시점에서 1년내 만기가

돌아오는 중장기 외채는 단기외채로 간주함.

□ 현재 새로운 기준에 의거한 지난해 상반기 이전의 외채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, 이번 발표에 따르면 표면상 중국의 총외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, 특히 단기외채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.

- 종전 기준에 의한 2000년말 총외채는 1,457.3억 달러, 그 중 단기외채는 9% 미만인 130.5억 달러에 불과하나, 새로운 기준에 의한 2001년 상반기 현재 단기 외채 비중은 34%나 되어 국제적 경계선인 25%를 크게 초과함.

<표>중국의 외채부담 지표(%)

	2000년	2001년 상반기	국제경계선
채무상환률(중장기외채 원리금 상환 및 단기외채 이자/경상항목 외환수입)	9.2	n.a	20
채무율(총외채/경상항목 외환수입)	48.7	51.8 *	100
총외채/GDP	13.7	14.7 *	20
단기외채/총외채	9.0	33.8	25
단기외채/외환보유고	7.9	31.8	100

주: *는 추계치, 외채원리금 상환 통계 결여로 채무상환률(D.S.R.) 산출을 못함.

자료: 중국국가외환관리국, 국민경제연구소

□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의 외채 리스크 증대와 심지어는 외환유동성 위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으나, 여타 외채부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로 설득력이 없음.

- 총외채 증가는 대부분 통계기준 조정에 의한 것이지 신규 외채의 대량 차입 때문이 아님.
- 오히려 과거 공식 외채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잠재적 리스크를 조성해 왔던 외환채무가 양성화됨으로써 외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되었음.
- 중국의 일부 외채부담지표들이 전년도 연말 대비 다소 상승했지만, 단기외채 비중을 제외하면 나머지 지표는 여전히 국제경계선 내에 머물러 있음.
- 특히 일국의 외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기외채/외환보유고 비율이

날로 중시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, 동 지표가 국제경계선의 1/3에도 못미치는 중국이 외환유동성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(樊綱 중국국민경제연구소 소장). (***)